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5월 27일(수) 배포즉시

담당 : 기업지원본부 전종윤 과장
(051-990-7063)

제282차 부산경제포럼 개최

MASGA 필승전략과 부산이 가야할 길

▶ COR Energy Insight 권효재 대표 강연에 지역 기업인 등 190여 명 참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27일(수) 오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MASGA 필승전략과 부산이 가야할 길' 이라는 주제로 제282차 부산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오늘 포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강동석, 신한춘, 이수태, 장호익 부회장과 권기재, 김영득 감사가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9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강연을 맡은 COR Energy Insight 권효재 대표는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동성이 심화된 외환시장의 동향을 짚으며,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주요 이슈와 국내 경제 및 통화 환율 전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효재 대표는 강연에서 "미 해군이 실제 함대 확충과 재편성 계획을 발표하고 동맹국과의 협업을 공식화한 만큼 국내 조선 산업이 MRO를 비롯해 협력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면서, "현지 생산과 고용을 기반으로 실제 믿을만한 동맹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 이라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 조선·해양기업들도 친환경 선박 개조와 스마트 MRO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면서, "오늘 강연이 한미 조선 협력의 흐름과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한미 조선 협력으로 미 군함 MRO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조선기자재 산업에도 이에 맞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강연이 지역 조선 산업이 미국 조선 산업 공급망에 진입해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고 말했다.